

##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속화

신 석 영 수석연구원

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의 유통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, 향후 국경 간 결제를 중심으로 2028년 최대 5조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. 이에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관련 법제화 논의가 최근 급진전 되고 있으며,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. 스테이블코인과 CBDC 연계는 회계 처리 등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나, 당분간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연계 시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### ■ 최근 미국과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<sup>[1]</sup>

- 스테이블코인(Stable Coin)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고정(Pegging)된 가상 자산이며,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낮은 송금비용을 장점으로 시장 규모 확대
  -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성이 낮아 국경 간 결제(Cross border payment)를 중심으로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 중
  - USDT 등 상위 10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'20년 12월 275.2억 달러에서 '22년 12월 1,550.0억 달러로 성장을 기록(Statista)
- 일본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독점 발행을 허가하는 자금결제법을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며, 미국과 홍콩 역시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
  - 미국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, CBDC 연계 등의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하였으며('23.04), 이르면 7월 관련 법안의 표결 진행 예정
  - 홍콩 재정사무국 쉐나 하오리안 부국장은 2024년 말 입법을 목표로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지원책도 제시할 예정('23.06)

### ■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CBDC와 결합되며 5년 후 최대 5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 전망


-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를 확산시킬 수 있는 주요 유통 수단으로 부상 중이며, 특히 양자의 결합은 국경 간 결제의 혁신을 가져올 전망
  - CBDC는 중앙은행의 도매용 디지털화폐, 스테이블코인은 CBDC 유통 역할 담당
- 중국은 CBDC의 일종인 디지털 위안화(e-CNY)를 주요 도시에 보급하는 등 CBDC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, 주요국의 CBDC와 스테이블코인 연계도 속도를 낼 전망
  - 투자은행 번스타인(Bernstein)은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CBDC 유통량이 급증하고 연계 시장 규모가 5년 후 최대 5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

[1] “세계는 지금 ‘스테이블코인’에 주목”, CoinDesk, 2023.06.22

■ 한국은행도 최근 CBDC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, 법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국내에서의 관련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

- 한국은행은 올해 CBDC 실증사업을 핀테크 등 다양한 업체와 확대 실시하고 내부 관련 조직을 강화하며 CBDC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양상
  - 한국은행은 '22년 하반기 14개 시중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CBDC 실험을 수행했으며, 올해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핀테크기업을 사업에 포함할 방침
  - 또한 내부 CBDC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개 팀 규모였던 CBDC 전담조직을 올 2월 4개 팀 규모의 독립 연구부로 격상(디지털화폐연구부)
-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
  - 한국은행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“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감시는 한국은행법 체계를 따를 필요가 있다”고 주장,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

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 가능성은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나, 당분간 CBDC의 유통 실험은 스테이블코인에 집중되고 국내 금융업의 관련 사업화도 확대될 전망

- CBDC의 유통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간 회계 연동 등의 한계가 지적되며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나, 현재 스테이블코인 이외 수단은 제한적
  - 스테이블코인의 대체 수단으로 예금토큰(CBDC 기반의 은행예금 토큰화)이 부상 중이나, 예금토큰은 CBDC 활성화가 전제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도입 한계
- 단기적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사 CBDC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연계가 예상되며, 중장기적으로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의 CBDC 유통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
  - 최근 JP모건은 일본의 SBI 및 싱가포르 통화청(MAS)과 협업하여 법정화폐(싱가포르 달러 및 엔화)를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하는 실험을 수행('22.11)
  -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금토큰이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특성을 갖고 있어 향후 CBDC의 주요 유통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('23.03) 

■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

국가	법제화 단계	현황
미국	국회 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(2023.04)</li> <li>· 스테이블코인 정의, 발행사 규제, CBDC와의 연계 등을 포함</li> </ul>
EU	법안 통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상자산 법안인 MiCA에 스테이블코인 내용을 포함, EU 의회 통과 완료(2023.04)</li> <li>·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등이 포함되었으며, 최근 발행요건 완화 검토(2023.06)</li> </ul>
일본	법안 발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중은행에 국한하는 자금결제법 시행 중(2023.06~)</li> </ul>
홍콩	법안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24년 말 입법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와 지원방안 검토(2023.06)</li> </ul>
한국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감독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보고서 발간(2022.12)</li> </ul>

자료 : 언론보도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[2] “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”, 한국은행, 2022.12.05